

동·서양의 架橋, 東西文化센터

宋 瑋 燮

(亞洲大 經濟學科)

1. 東西文化센터의 設立背景

1960 년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 어느 해에 불과했으나 동·서양간의 문화 및 기술을 상호 교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東西文化센터(the East West Center)가 설립된 해 이기에 적어도 인문·사회과학을 연구 분야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뜻 깊은 해로 기억되고 있다.

즉 1959 년에 하와이주의 대표단이 미국 의회에서 東西文化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거의 1 년만에 당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Dwight D. Eisenhower)에 의해 동법안이 서명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해 7 월에는 하와이주립대학이 미국무성으로부터 東西文化센터 운용을 위한 연방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이에 호응하여 하와이대학은 21 에이커에 달하는 대지를 東西文化센터의 부지로 할애하는 등 의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같은 해 9 월에는 제 1 회 장학생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미국 본토로부터 도착하였고, 1962~63 년간 800 만 달러 이상의 건축기금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동, 극장, 기숙사, 강의동 등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명실상부한 연구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하와이주의 역사

하와이주의 주정부 청사가 위치한 호놀룰루에 東西文化센터가 설치되게 된 데에는 그 지리적 위치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하와이는 지역적으로 볼 때 東西洋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동·서양의 다수 인종이 모여 살고 있어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출신 사람들이 문화적 이질감(cultural shock)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적게 느끼고 포근한 감을 느끼게 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東西文化센터의 입지 선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하와이주의 역사에 관해 보기로 하자. 하와이는 4~5 세기경에 폴리네시아(Polynesia)인들에 의해 발견되어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1778 년 1 월에 영국의 제임스 쿡(Captain James Cook)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서구세계와의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하와이섬은 카메하메하(Kamehameha I) 대왕에 의해 통일국가를 이룬 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함에 힘입어 크게 문물이 융성하였다. 1800 년경에는 포경업자들과 선교사들이 앞을 다투어 진출하였고, 1800 년대 중반에는 사탕수수 주산물로 하여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plantation)사업을 위해 부족한 노동

력을 外地에서 들여오기 위해 취업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866~84년까지 4~5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주하였고, 사탕수수 농장의 인력 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1878~79 년간에 12,000 여 명의 포르투갈인이 이주하였다. 1875년까지는 백인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점차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일본인(1885년에 943명), 푸에르토리코인(1901~1902년 사이에 5,000여명), 필리핀인(1930년까지 100,000명), 한국인(1903~1905년 사이에 7,000여명)들이 모여들어 마치 태평양상의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지인들의 대거 이주와는 반대로 정작 원주민들인 하와이인(Hawaiian)들은 文明病 때문인지는 몰라도 인구가 $\frac{1}{10}$ 로 감소되었음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원주민들의 가장 밝은 적은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인종간의 결혼을 쉽게 받아들였고 각 인종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오는 여행객들이 안락함과 포근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분위기가 도처에 있다고 보겠다. 즉 여행객들은 음식, 의복, 각종 휴식 오락시설 등에서 이국적인 것과 동질적인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됨으로써 편하고 안락한 여행을 즐기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미국 의회에서 적절히 설득시킨 하와이주 대표단의 노력이 의원들에게 큰 호응을 유도해 냈다고 보겠다.

하와이주는 1959년에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격되었고 제트엔진의 발달로 대량수송 수단이 발달하자 교통의 요지로 변신된 하와이는 東西洋文化의 교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배경을 갖게 되었다.

3. 東西文化센터의 發展過程과 組織

1960년 설립 이후 東西文化센터는 1975년까지는 하와이주립대학내의 연구 및 장학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어 오다가

1975년에 운영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각국 정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들로부터의 연구기금 기탁을 추진하기 위해 하와이주립대학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익법인(incorporation)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경과 함께 센터 사업의 중점목표도 초창기의 장학기관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전문가들의 육성, 상호 교환방문 및 공동연구에 보다 많은 예산과 배려를 기하게 되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75년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독립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강력히 나타난 1975년 이후에도 하와이주립대학과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한결같이 지속되어 명실상부한 자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호 깊은 신뢰를 배경으로 하여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그 예로 센터의 많은 연구원(research associates)들이 하와이대학의 강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하와이대학의 교수들도 센터의 여러 연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센터의 역점사업으로 초창기부터 줄곧 실시되어 온 장학생 선발 사업은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들을 격심한 경쟁 과정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체 학생의 2/3를, 그리고 나머지 1/3을 미국으로부터 선발하고 있다. 이제까지(1960~85) 25년간 박사과정에 948명, 석사과정에 2,890명, 학사과정에 266명, 그리고 학위과정 이외의 학생 45명을 합쳐 4,149명의 장학생을 길러 낸 것을 보아도 센터의 업적이 어떠한가는 쉽사리 짐작이 간다. 더구나 석사 학위 이상의 과정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대부분이(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이미 그들의 모국에서 각기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국가발전의 최일선에서 각자 자기들의 몫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각자 목표로 했던 학위를 수령한 후에는 대부분이 모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주어진 직책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었음을 볼 때 더욱더 센터의 업적은 빛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센터의 중점사업목표가 전문가의 육성 및 공동연구에 주어지자 각 분

야의 정상급 학자, 연구원, 연구조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1960~85년까지 각 분야의 정상급 전문가 또는 학자(fellow) 2,045명, 연구원(professional associates) 28,735명, 연구조원(research intern) 1,042명 등을 지원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자금 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이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다.

장학생 지원 사업과 공동연구의 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센터가 계속 추진할 양대 지주로서 큰 몫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東西文化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을 간략히 보면, 조직의 최정상에 의결기관으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Meeting)가 있어 주요 결정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으며 그 구성을 보면 총 15인으로, 5명은 하와이 주지사가 지명하고 5명은 미국무장관이 지명하며 나머지 5명은 이사회가 선출토록 하고 있고 투표권 없는 3명(하와이 주지사, 미국무성 교육문화 담당 차관보, 하와이대학교 총장)이 이사회에 참석토록 하여 이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센터는 집행기관으로 총장(president) 밑에 각 연구소(institute)와 행정조직을 갖추고 250여 명의 직원들이(연구원 포함) 이사회의 결정 사항 및 일상의 연구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장학생의 경우 매년 100여 명이 각국에서 선발되며 재학생 200여 명을 합하면 300여 명의 장학생들이 하와이대학의 50여 개 학과에 분산되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가장 인원이 많은 학과는 경제학과, 정치학과, 지리학과, 인류학과 및 사회학과 등이다. 장학생들은 각기 자기가 선택한 분야의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센터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세미나, 회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학위 획득에 그치지 않고 폭 넓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센터의 부설연구소는 ①文化 및 情報通信研究所(The Institute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ICC), ②環境 및 政策研究所(The Environment and Policy Institute; EAPI), ③人口問題研究所(The Population Institute; PI), ④資源 및 政策研究所(The Resource Systems Institute;

RSI), ⑤太平洋沿岸島嶼開發計劃(The Pacific Islands Development Program: PIDP) 등이 있으며, 이상의 연구소에서 행하는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연구 지원부서(Open Grant)를 설치하고 있다.

4. 附設研究所의 特徵과 研究分野

이제 센터의 4개 부설연구소와 1개의 연구사업의 특징과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해 보기로 하자. 먼저 문화 및 정보통신연구소(ICC)는 세계 각국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간의 정보통신교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 가지 중점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즉 IC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예술,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역할, 인문 분야, 뉴스미디어 및 국제관계 분야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이 지역의 예술관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 및 매년의 하와이 영화제(Hawai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를 개최하고 있으며, 둘째로,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역할에 관한 연구사업으로서 ①경제개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 ②도시, 농촌간의 정보통신망 개발, ③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효과 분석, ④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위치, ⑤경제개발에 따른 문화환경의 변화 등의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진척시켜 가고 있다. 셋째로, 인문 분야(humanities)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언어학, 법률학, 철학, 종교학 등 분야의 학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변화를 이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비춰보도록 지원하는 외에도 작가들의 저술 활동과 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넷째로, 뉴스미디어 및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벌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967년부터 출범 실시해 온 Jefferson Fellow Program이 있는 바 이 프로그램은 이 지역의 신문, 방송관계 종사자들을 초빙하여 세미나,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이 지역에 관한 이해를 높여 주며 보다

높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공헌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환경 및 정책연구소(EAPI)는 자연환경의 관리 방법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개발계획 집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입는 각종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보면, 첫째로, 개발계획의 집행이 가져올 자연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경제개발 계획의 집행을 통한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자연 생태계의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로, 인간 및 환경 형태 연구 프로그램은 사회가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모되는가와 인간의 활동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 셋째로, 산림 토지 정책 연구 프로그램은 산림의 보존, 벌채, 재조성 및 농업과의 연계 개발이 가져올 생물학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네째로, 댐의 건설 등 수자원 개발의 효과를 토양의 지력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농의 영농 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생산성, 定住性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연구를 행하고 있다.

인구문제연구소(PI)는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지역 인구의 총규모, 구성, 분포, 증가 등이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인구의 증가 추세와 추정에 관한 연구사업은 센서스, 각종 서어베이, 행정통계 등을 이용하여 출생률, 사망률 통계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좀더 정밀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로, 출산율 및 가족구성 행태 연구사업은 결혼 행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여성의 出産力 변화과정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으며, 셋째로,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총인구의 크기 구성, 질적 구성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경제발전 및 인적 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네째로, 도시화, 인구의 이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구의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이 가져올 영향력을 가족, 개별 이주자, 지역사회에의 영향력으로 나누어 연구·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규 연구사업과 병행하여 인구문제연구소는 1970년부터 매년 하계 인구문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들로 하여금 폭 넓은 이론에 접하게 하는 동시에 상호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구문제에 관한 ASEAN 지역의 국회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계속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자원 및 정책연구소(RSI)는 경제개발 전략 및 국제경제관계 연구, 에너지정책, 광물자원 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진력하고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보면, 첫째로, 개발 전략 및 국제경제관계 연구사업은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각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이들 정책들이 각국의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로, 에너지관계 연구사업은 이들 지역의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셋째로, 광물자원에 관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광물자원의 매장량 규모, 분포의 추정을 하는 외에도 이들 광물자원의 개발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각국 정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태평양지역 도서개발 프로그램(PIDP)은 태평양에 산재해 있는 낙후된 도서지역의 개발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으로 이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의 연수와 교육, 공동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태평양지역 에너지관계 연구사업, 천재 예방 및 복구사업, 태평양지역의 토착산업 및 민간부문 개발사업, 이들 지역의 다국적기업의 역할 및 태평양지역의 정부 조직 형태에 관한 연구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東西文化센터 부설연구소의 특징과 연구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센터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간략히 보기로 하자.

5. 우리나라와 東西文化센터

센터의 설립 이래로 한국은 깊은 인연을 맺고 상호 협조를 아끼지 않아 1960~85년 사이에 연인원 1,531명의 학자, 전문가, 장학생이 센터의 재정적 지원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지속하거나 석사, 박사학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즉 25년간의 기간중에 석사학위 취득자가 205명에 달하였고 박사학위 취득자 또한 93명에 달

하여 1986년 현재 수많은 학위 소지자들이 국내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부처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예지를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센터의 일방적 재정 지원을 받던 위치에서 발전하여 정부가 센터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위치로 바뀌었으며 우수한 기업 및 사업자 단체 또한 민간 레벨에서 센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앞으로도 센터와 우리나라의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어 수많은 인재 양성에 양국의 공동 노력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教育箴言〉

옛날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禮를 익히고 樂을 익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이란 글을 읽는 것 뿐이다.

문학이란 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에서 학교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소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배운다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스승이 있는 후에 배움이 있으니 오래 덕을 쌓은 이를 초빙하며 師長을 삼은 후에야 배움의 규칙을 의논할 수 있는 것이다.

堂廡를 수리하고 쌀 주는 것을 보살피며 널리 서적을 備置하는 것도 또한 어진 牧官의 留意하고 힘쓸 것이다.

端雅하고 方正한 자를 가려서 齋長을 삼아 表率이 되게 하고 예로써 대우하며 엄치를 기를 것이다.

늦가을에는 養老의 예를 행하여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초겨울에는 鄉飲의 예를 행하여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길을 가르치며 仲春에는 饗孤의 예를 행하여 孤兒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가르친다. 때를 살피서 향사의 예를 행하며 때를 살피서 投壺의 예를 행할 것이다.

“古之所謂學校者，習禮焉，習樂焉，今禮壞樂崩學校之教，讀書而已，文學者，小學之教也，然則後世之所謂興學者，其猶爲小學乎，學者，學於師也，有師而後有學，招延宿德，使爲師長，然後學規，乃可議也。修葺堂廡，照管米粟，展置書籍，亦賢牧之所致意也。簡選端方，使爲齋長，以作表率，待之以禮，養其廉恥。季秋，行養老之禮，教以老老，孟冬，行鄉飲之禮，教以長長，仲春，行饗孤之禮，教以恤孤。以時行鄉射之禮，以時行投壺之禮。”

〈牧民心書，禮典六條 興學〉